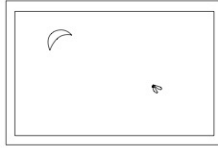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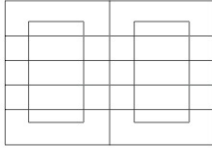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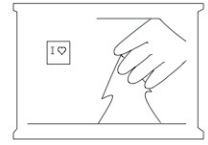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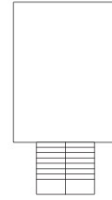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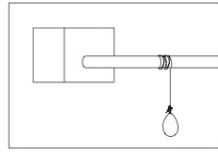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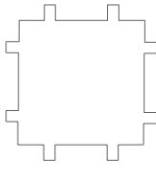


콤플렉스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더프리뷰 서울 2026>의 A1 부스에서 고용국, 박유채의 2인 프레젠테이션 <A Practice of Distance>를 선보입니다. 향후 콤플렉스 기획전을 통해 소개할 두 작가의 작업을 미리 보이는 이번 페어에서, 부스는 두 사람이 서사와 조형 언어 사이에서 취하는 균형의 양상을 톺아보고 대비하는 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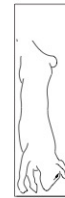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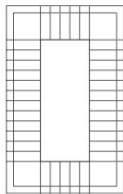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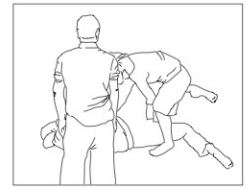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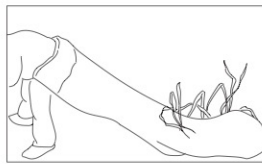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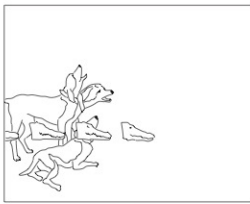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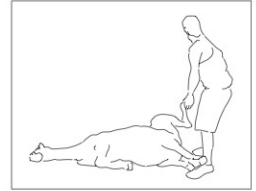
고용국은 수집한 물건과 자기 반경에서 쉬이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재료들로 평면, 입체, 설치 작업을 전개합니다. 특히 주운 재료는 중고로 사들이거나 우연히 획득한 주인 없는 물건들로, 작가는 매체와 양식의 갈래를 가리지 않고 작업 전반에서 이들을 사용하며 이 재료가 자기 작업 안에서 수행하는 의미를 지속해서 읽어왔습니다. 기억과 경험을 집적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발화하지 않는 익명성을 지닌, 침묵하고 있지만 중립적이지 않은 이 오브제들은 작가의 작업 안에 들어와 시공간의 차원과 서사를 뒤틀고 넓힙니다.

박유채의 화면에선 계급과 서열, 폭력과 불의의 징후가 어슴푸레 감지되는 와중, 다른 이의 몸통에 얼굴이 가리워졌거나 화면 밖을 완전히 등진 채 서 쉬이 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인물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 때 작가의 시선은 흥미롭게도 그 같은 장면을 그리는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목인하는 이, 용기가 없어 현실을 개혁하지 않는 이, 방관하는 이. 서사의 구체적 생김새를 읽어보려 화면 가까이 다가가면, 마주하는 것은 작가가 촘촘히 축적한 납작한 화면입니다. 가루안료를 사용해 린넨 면 위에서 아래로 무수히 그은 선, 이 선을 따라 재편된 작가의 세계 안에서 현실의 권력과 위계는 짓눌리고, 방관한 이의 부끄러움은 납작한 화면 안으로 켜켜이 숨어듭니다.

둘은 집요한 과정 끝에 서사를 채집한 후 조형 언어의 구사에 몰두함으로써 의미와 상징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를 체득합니다. 고용국이 나무로 틀을 짜 박스 형태를 꾸리고 그 속에 오브제와 드로잉, 조각, 프린트, 각종 조형물을 봉인하듯 담은 것은 창작자인 자신도 감상자도 작품에 담은 이야기와 의미를 '관조'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박스 앞 아크릴 유리를 불투명하게 조형한 것도, 다소 '미완의 상태'라 느끼는 지점에서 박스 안 오브제의 배치를 멈춰 조형물의 조합이 암시하는 의미를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렵게 내버려 둔 것도 작품과 관계 맺는 이들이 적극 서사를 수정하거나 해석하기보다 작품 안 조형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대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박유채의 '거리 두기'는 선을 긋는 행위에서 발현됩니다. 화면 위 눌러 쌓인 선들은 제각기 다른 굵기와 농담, 토채(土彩)로 조색된 미묘한 개성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작가가 수학해 온 동양화의 획(劃)에서 뻗어 나온 조형으로, 작가는 이 무수한 선을 긋고 축적해 화면을 구축하는 행위에 몰두함으로 자기와 서사 간 거리를 조형합니다. 마치지 않은 서사와 두드러지는 조형 언어를 안고 두 사람의 작업은 누구에게 닿든 스스로 발화합니다.



*SP1



고용국
〈별세기〉, 2024
목재, 스티커, 유리섬유, 천,
강황차
40 × 40 × 40 cm
2,500,000₩

고용국
〈여름꿈〉, 2023
목재, 바니쉬, 아크릴 물감, 아크릴 유리,
주운 물건, 스티로폼, 점토
25 × 35 cm
1,800,000₩

고용국
〈계으른 자의 기도〉, 2023
목재, 아크릴 물감, 아크릴 유리,
주운 물건, 끈, 커피
40 × 20 cm
1,800,000₩

고용국
〈깁 필요 없어〉, 2023
목재, 바니쉬, 아크릴 물감,
아크릴 유리, 주운 물건, 사진, 펜
24 × 33 cm
1,800,000₩

고용국
〈Wanderlust〉, 2023
목재, 바니쉬, 아크릴 물감,
아크릴 유리, 주운 물건
40 × 60 cm
2,300,000₩

고용국
〈Untitled〉, 2025
목재, 아크릴 물감, 아크릴 유리,
주운 물건, 미니어처, 스티커
25 × 35 cm
1,800,000₩

고용국
〈Leftover〉, 2023-2024
작업복, 복면, 여러 종류의
실 및 천, 주운 물건
가변설치
4,200,000₩

박유채
〈쓰러진 말과 빈말 구출기〉, 2025
린넨에 가루안료
150 × 180 cm
7,400,000₩

박유채
〈악어의 눈물〉, 2025
린넨에 가루안료
150 × 180 cm
7,400,000₩

박유채
〈목화지대와 감자칩〉, 2025
린넨에 가루안료
111 × 183 cm
6,800,000₩

박유채
〈노숙자와의 동침〉, 2025
린넨에 가루안료
150 × 187 cm
7,400,000₩

박유채
〈가해자의 얼굴〉, 2025
린넨에 가루안료
150 × 187 cm
7,400,000₩

박유채
〈무제〉, 2025
린넨에 가루안료, 각목, 실
48 × 31 cm
750,000₩

박유채
〈구출기(사람)〉, 2026
린넨에 가루안료, 호두나무
92 × 30.5 × 2 cm
1,000,000₩

박유채
〈구출기(토끼)〉, 2026
린넨에 가루안료, 호두나무
53 × 18.5 × 2 cm
750,000₩

박유채
〈구출기(무빙 토끼)〉, 2026
린넨에 가루안료, 호두나무
46.5 × 60.5 × 2 cm
900,000₩